

與, 북미회담 결렬·미세먼지 '난감하네'

악화된 여론에 중국과 공동 대처 추진 등 모수찾기 회담 결렬 여진... 긍정 평가하며 대화 불씨 살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이어 최악의 미세먼지 등 돌발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상황 수습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뽕족한 수'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수도권에 옛새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등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사태는 실생활, 건강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더욱이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입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약속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어 난감한 처지가 됐다.

우선 민주당은 당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중국과의

공동 대처 등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감담회에서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 달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당도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중국과의)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과 초당적 의원 방중단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사태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 긍정적"이라

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의원 방중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본질적인 대책은 빨리 세우되 당장은 마스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본적으로는 석탄발전소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고 경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꿔야겠지만, 초단기대책으로 서울의 모든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썼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예상 밖 결렬'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흐름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문 대통령과 정부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미 두 정상 사이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헤어진 것은 아니지 않나"며 "내년 4월 총선 전에만 뭔가 이뤄지면 당에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 평화 변영이라는 큰 프레임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故 노회찬 지역구 경남 창원 성산 '5파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진표 윤곽... 진보 단일화 관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창원 성산과 경남 통영·고성 등 2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선거'지만,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경남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여야 모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은 일단 '5파전' 구도가 그려졌다. 원내 7당 중 민주평화당과 대한애국당을 뺀 여야 5당이 모두 후보를 낸 것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민호 창원 성산 지역위원장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기훈 전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이재환 부대변인을 각각 공천했다. 또한

중당은 손석형 창원시장 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창원 성산(과거 창원읍)의 경우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16년 20대 총선까지 다섯차례의 선거에서

한국당 계열 정당이 두 차례, 정의당 계열 정당이 세 차례 승리했다.

각 정당의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창원 성산 승부의 최대 변수는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당의 법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단일화 제안에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표한 반면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혀 삼자 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날 현재 주요 정당 중 민주당만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경선 결과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 한국당은 오는 10일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당 예비후보로는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1차관, 정점식 변호사 등 3명이 등록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적임자를 물색 중이지만,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심상정 "한국당, 10일까지 선거개혁안 제시하라" 최후통첩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3 당 간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간사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자유한국당 정재원 간사,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연합뉴스

정개혁위원장 기자회견담회... 4당 단일안 주내 확정 당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법제 시한을 넘긴 선거개혁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한국당이 끝내 선거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10일까지 선거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도 현재 논의 중인 선거개혁을 패스트트랙(산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으

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다만, 선거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의 범위와 선거개혁 단일안을 놓고 여야 4당 내에서 명쾌한 정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각 당이 7일까지 의총을 통해 입장정리를 끝내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해 선거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이 온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선거개혁 논의가 표류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선거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1월 말까지 합의처리 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에 3월 10일을 기한으로 제시한 것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2주의 시간을 드린 것"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거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불법을 향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또 "한국당 일각에서 '선거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의원직 추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과 관련, '그동안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에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데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이라고 꼬아붙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선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행 계획을 제출한다면 여야 합의사항이자 한국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관련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비서관 인사... 신설 평가기획비서관에 최중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평가기획비서관에 최중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노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최 비서관도 서울 출신으로 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실 2차장

산하에 비핵화 관련 대미(對美)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가기획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군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공식 출범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상석)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당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통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총선승리, 여성당원의 힘으로'란 슬로건을 내건 이날 발대식에는 서상석 도당 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백혜련 당 전국여성위원장,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선출직 공직자, 여성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당원을 대표해 안명희·문점숙·조미라 여성부위원장이 '여성당원의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또 여성 이그나이트 발표회 최우수상을 받은 이춘봉 당원의 '이주 여성당원의 활동 사례' 발표와 공로패·감사패도 전달했다.

여성당원들은 '열린 영성제안'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38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 ★ [서구]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2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 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